민주통합 예비후보 15명 당권 레이스

새 지도부 선출 한명숙·박지원 등 출사표

민주·친노·시민사회 세력구도 결정 관심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대진표가 22일 확정됐다. 이날 마감한 예비후보 등록 결과, 모두 1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으로는 한명숙·박지원·이인영·김부겸·이종걸·이강래·우제창·신기남·김태랑·김영술 후보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후보 등록 시한이 임박해 출마를 결심했다. 시민통합당 출신으로는 문성근·이학영·김기식·박용진 후보 등 4명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26일 중앙위원 762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를 9명으로 압축한 뒤, 내달 15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포함 선출직 최고위원 6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1인3표제로 치러지는 1차 관문인 예비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긴장도는 더욱 크다. 중앙위원 가운데 옛 민주당 몫이 462명으로 시민통합당 출신 300명보다 훨씬 많지만 후보도 많아 표의 분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컷오프를 통과한 9명의 후보는 내달 15일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을 돌며 TV 토론과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선거전을 벌인다. 지도부 경선은 대의원(2만1000여명) 현장투표가 30%, 당원·시민 투표가 70% 반영되며, 1인 2표제로 치러진다. 시민·당원 투표는 모바일 투표(1월9~11일)와 전국 263개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현장 투표(1월14일)로 진행되며, 선거인단은 예비경선일인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인터넷·모바일·현장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민주·친노(親盧) 진영과 시민사회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명숙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박지원·이인영·문성근 후보가 뒤쫓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김부겸·박영선·이학영·이종걸 후보 등도 컷오프 통과가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번 전대는 민주당, 그리고 친노(親盧)와 시민사회 주도의 시민통합당 간 합당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내 세력구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한명숙 전 총리(왼쪽)와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궁전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강북을 지역당원대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욱이 경선구도가 친노·호남·486·비주류·시민사회·진보 진영들로 어지러이 얽혀있어 누가 당권을 잡고 지도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당내 세력판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또 민주통합당의 대권 후보군인 손학규·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리전 성격도 간과할 수 없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26일 컷오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국민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면서 아쉬움이 크다"면서 "하지만, 1차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등 흥행소재도 있어 본경선에서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총선승리·정권교체 내가 적임자"

전대 출마 선언…청년·전문가 비례대표 대거 공천 제기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2일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최적임자"라며 다음달 15일 열리는 당 지도부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라며 "파벌과 친소관계로 뽑으면 실패하고 능력으로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권력의 핵심에서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성공시킨 준비된 경험과 경륜, 원내대표로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활시키고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을 앞선 검증된 투쟁력과 지도력,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 등을 보고 박지원을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당내 단결과 결속을 확고히 하고 모든 세력을 결집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것"이라며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노동문제 해결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청년·여성·전문가 등 유능한 인재에게 당의 문호를 활짝 열어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뒤 ▲청년·전문가 비례대표 대거 공천 ▲석패율 도입 등을 통해 전국정당으로써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정찬용, 내년 총선 불출마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냈던 정찬용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가 22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면서 내년 4월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민족사의 분수령이 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민주정부가 지향했던 남북화해를 통한 민족의 대통합이 이뤄지겠지만 패배하면 남북분단은 영구히 고착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명령인 야권 대통합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참여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통합하는 것은 '소통합'이라며 비판하며 최근 참여당을 탈당했었다.

정영재 "광주 동구 총선 출마"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는 22일 "20년 이상의 시민사회운동과 남북평화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여년간 시민의 편에서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 상임대표, 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 광주전남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박선원, 나주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비서관은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혁신과 통합 전남지역 상임대표를 맡았던 박 예비후보는 이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남평농협 농가 주부모임과 마을총회 등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주·화순에 '초고령·저출산, 저성장 경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형석, 하루 20리 도보 선거운동

이형석 북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매일 20리(8km) 도보 선거운동을 통해 동계 민생현장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가는 주민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20리 탐방은 지역 현안사업 발굴과 장기 숙원사업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잇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경청의 정치를 통해 소통의 리더십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남 "광주시 재설대책 엉망"

광주시의회 김영남(민주·서구3) 행정자치위원장은 22일 "광주시의 제설대책이 엉망"이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철저한 제설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지역에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6일 7.4㎝ 적설량에 광주지역에는 교통대란이 벌어졌다"며 "광주시 나름대로 꼭두새벽부터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광주시 전체를 운용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폭설주의보가 발령되면 눈이 내리는 양을 시간대별로 세분화해 고가도로와 경사로 등 특수지역을 별도 관리하고 기동반을 운영해 주요도로를 집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산업과 일자리' 이색 출판기념회

이병훈 단장…유명 문화기업 CEO들과 '토크콘서트'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정치색이 짙은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과 일자리'를 주제로 한 이색 출판기념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5년 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온 경험과 자신의 문화정책 철학을 담은 '아시아로 통하는 문화' 출판기념회가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기존 정치판 출판기념회와 달리 유명 정치인, 기관·단체장, 유력 인사들이 초대되지 않고, 문화계 및 문화산업 관계자와 대학생·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

진행도 파격적이었다. 우선 이 단장의 '광주에서 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관호(올댓플래닝 대표), 안성철(컴퍼니 원 대표), 서석준(스튜디오 홀호리 대표), 박성미(DK미디어 대표)씨 등 국내 유명 문화기업 젊은 CEO들이 참여한 '토크(talk) 콘서트'로 진행됐다.

또한, 청중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대담자들이 이를 답변하는 등 열띤 토론도 이뤄졌다.

출판기념회가 일종의 문화정책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셈이다. 문화기업 CEO들은 "다양한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상상도 하지 못할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들은 또 "문화산업의 바탕이 되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단장은 "5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해오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문화를 통한 길이 보이고, 성공할 자신도 있다"며 "하지만 행정적으로 힘이 부치고,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자 새로운 길을 갈 계획"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광역경제권 2단계사업(선도전략산업)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호남광역경제권 2단계사업(선도전략산업)의 2012-2014년도(3년) 신규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1. 수요조사 목적

• 『광역 선도산업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 인재확보 중심으로 광역선도산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12년 호남광역경제권 2단계(선도전략산업)의 향후 과제 발굴 및 기획 등을 위한 후보과제 도출에 활용

2. 수요조사 범위

• 호남권 2단계 사업(선도전략산업)으로 특화된 분야에 한하며 유망상품 관련 과제

3. 호남권 선도전략산업 개요

미래성장동력			대표주력		
산 업	프로젝트	유망 품목	산 업	프로젝트	유망 품목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소재중심)	•잉곳/폐이퍼 생산용 소재 •셀 생산용 소재 •결정질 모듈 생산용 소재 •박막 모듈 생산용 소재	광 용 · 복 합	광부품 및 시스템	•광응용센서 및 통신시스템 •광융합부품 및 기기
				신광원조명	•일반/산업용 신광원조명 •융복합 신광원조명
	풍력 시스템 · 모듈	•핵심소재(비금속중심) 및 부품(단기상용화) 개발 및 제조 •풍력발전 모듈, 시스템 개발및 시험 · 성능평가 •풍력터빈 제조 · 조립 및 엔지니어링	친환경 수송 기계	친환경차량 및 부품	•디젤차량용 전장부품 •디젤차량용 새시 및 차체 부품 •변속 및 구동시스템 •친환경 농업용차량 부품 •전동식 보기류 및 새시부품 •충전시스템 및 전지팩부품
라이프 케어	바이오 식품	•미생물응용식품 •웰빙발효식품 •라이프케어기능성식품			
	바이오활성 소재	•천연물친환경생명소재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해양바이오소재		그린 · 레저 선박	•중소형선박 추진 및 발전시스템 •중소형선박 운항 · 안전관리시스템 •인간감성 및 쾌적성 향상 내외장부품 •고속선박부품 •레저선박 선체부품

4. 제안안내

□ 제안자격
• R&D분야 : 호남광역경제권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창업한지 현재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비R&D분야 : 호남광역경제권내에 선도전략 Projcet에 관련이 있고 참여의사가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기 간
• 공고기간 : 2011. 12. 23(금) ~ 2011. 12. 30(금) 18:00
• 접수기간 : 2011. 12. 23(금) ~ 2011. 12. 30(금) 18:00

□ 결과활용
• 신청된 수요조사서는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산 · 학 · 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업내용(사업비 및 사업추진기간 등)을 조정한 후 향후 과제 발굴 및 기획 등을 위한 후보과제로 도출

□ 제안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미래성장동력			대표주력		
산 업	프로젝트	연 락 처	산 업	프로젝트	연 락 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소재중심)	•TEL : 062-602-7163 •이메일 : yhmo@leading.or.kr •팩스 : 062-602-7171	광 용 · 복 합	광부품 및 시스템	•TEL : 062-602-7170 •이메일 : dkkim@leading.or.kr •팩스 : 062-602-7171
	풍력시스템 · 모듈	•TEL : 062-602-7155 •이메일 : jsm5485@leading.or.kr •팩스 : 062-602-7171		신광원조명	•TEL : 062-602-7170 •이메일 : dkkim@leading.or.kr •팩스 : 062-602-7171
라이프 케어	바이오 식품	•TEL : 063- 210-6512 •이메일 :pws2000@jib.re.kr •팩스 : 063-210-6519	친환경 수송 기계	친환경차량 및 부품	•TEL : 062-602-7160 •이메일 : jhlee@leading.or.kr •팩스 : 062-602-7171
	바이오활성 소재	•TEL : 061-286-4386 •이메일 : woodam89@jntp.or.kr •팩스 : 061-286-4394		그린 · 레저 선박	•TEL : 062-602-7160 •이메일 : jhlee@leading.or.kr •팩스 : 062-602-7171

□ 대상사업기간 : 36개월 이내(2012. 5 ~ 2015. 04)

□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필수)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을 통한 수요조사 내용의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 필수

□ 수요조사 양식 download :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http://honam.leading.or.kr)